

<p>When events occur, often we need accompanying words of explanation to fully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The Bible is full of examples of this where we have events described, but accompanied by words to help us grasp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ose events. The Cross of Calvary is a wonderful example of this. In spite of the unimaginable pain and anguish that Jesus was enduring physic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 as he hung dying on the Cross, he spoke seven short but significant sentences from the cross, which together throw light on the cross. No one gospel records them all. Matthew and Mark preserve only one (what we refer to as the cry of dereliction), while Luke records three and John three. The church has cherished these so-called seven words from the cross as disclosing the otherwise unknown thoughts of Jesus. None of them was uttered in bitterness or complaint. As we will see, each is an expression either of his great love for us, or of his dreadful work of sin bearing, or of his final triumph and victory.</p>	<p>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설명되어 지는 부수적인 정보가 필요하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건을 서술함에, 그러한 사건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돕는 말들이 수반되는 이러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십자가는 이것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해 내셨던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곱개의 짧은, 그러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시에 십자가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는, 십자가상의 문장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복음서도 그것 모두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세가지 씩을 기록하고 있는 한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버려짐의 절규라 간주되는 단 한 가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다르게는 예수님의 알려지지 않은 생각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른바 가상칠언(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중 어떤 것도 비통 또는 원망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바와 같이, 각각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의 위대한 사랑 또는 죄를 감내하시는 그의 끔찍한 사역, 또는 그의 최후의 영광과 승리에 대한 표현입니다.</p>
<p>The first three words from the cross portray <u>Jesus the example</u>. They express the love he showed to others. As he hung there he did not dwell in self-pity on his pain and loneliness nor on the gross injustice that was being done to him. Indeed he had no thought for himself, only for others. The cross is the epitome of his self-giving- as he showed his concern for the men who crucified him, the mother who bore him and the penitent thief who was dying at his side.</p>	<p>십자가상의 첫 세가지 말씀은 <u>예수님이 그 본보기 되심을</u> 묘사합니다. 이는 그가 다른이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그는 그에게 행해졌던 심한 부당함 또는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에 대한 자기동정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는 자신에 대한 생각은 전혀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박해했던 자들, 그를 낳으셨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옆에서 죽어가던 회개한 도둑에 대해 염려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는 그의 자기 희생의 완벽한 본보기입니다.</p>
<p>His first word was his prayer for the forgiveness of his executioners. How remarkable! His physical and emotional sufferings had already been almost intolerable. But now he had been stripped naked and laid on his back, and the rough hands of the soldiers had wielded their hammers to drive in the nails. Surely now he will think of himself? Surely now he will complain against God like Job, or plead with God to avenge him, or show a little self-pity. But no, he thinks only of others. He may well have cried out in pain, but his first word is a prayer for his enemies. The two criminals beside him curse and swear. But not Jesus! He practices what he has preached in the Sermon on the Mount: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p>	<p>그의 첫번째 말씀은 자신의 사형집행인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육체적, 감정적 고통은 이미 거의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는 벌거벗기어지고, 십자가에 누워졌으며, 병사들의 거친 손들은 그들의 망치를 휘둘러 못을 박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는 스스로를 고려할까요? 읊처럼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또는 복수를 애원할까요? 또는 약간의 자기 연민을 보이게 될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다른 이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는 고통스러워 크게 소리쳤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첫 말씀은 그의 적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의 옆에 있던 두 범죄자들은 저주하고 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상수훈 설교말씀을</p>

<p>you, bless those who curse you, pray for those who mistreat you” (Luke 6: 27-28). For whom, then, was he praying? No doubt especially for the Jewish leaders who had rejected their Messiah but also for the crowd who had cried out “Crucify him”. In answer to Jesus prayer, they were granted a 40-year reprieve, during which many thousands repented and believed in Jesus. Only in AD 70 did the judgment of God fall on the nation, when Jerusalem was taken and its temple destroyed by the Romans.</p>	<p>직접 행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눅 6:27-28). 그렇다면 그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특별히 그들의 메시아되심을 거부했던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으라”하고 외쳤던 군중들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40 년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AD 70 년, 로마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성전들이 파괴되었을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행하여졌습니다.</p>
<p>All four Gospels tell us that 3 crosses were erected at Golgotha that fateful morning. They make it plain that Jesus was on the middle cross while two robbers were crucified on either side of him. At first both thieves joined in the chorus of hate directed at Jesus. Only one continued, however, hurling insults at Jesus and challenging him to save himself and them. But the second thief rebuked him saying, “Don’t you fear God....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We are punished justly....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Luke 23: 40-41). Then, turning to Jesus, the penitent robber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v. 42). This acknowledgement of Jesus’ Kingship is remarkable indeed. No doubt the penitent thief had heard the priests mocking Jesus’ claim to be the king of Israel, and he had probably read the inscription over his head, “This is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He had also seen Jesus’ quiet, regal dignity as he faced the horror of the Cross. At all events, he had come to believe that Jesus was a king. He had also heard Jesus’ prayer for the forgiveness of his executioners, and forgiveness is what he knew he needed, since he confessed that he was being punished justly.</p>	<p>모든 네 복음서는 그 운명의 아침, 골고다 언덕에 3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음을 말합니다. 복음서들은 두 범죄자가 양 옆에서 못 박히는 한편,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세워졌음을 분명히 합니다. 먼저 이 두 범죄자는 예수님을 향해 이구동성으로 증오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한 명만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그들과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시험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자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눅 23:40-41)하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회개한 범죄자는 예수님께 돌아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42 절)하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왕되심의 인정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마도 회개한 범죄자는 제사장들의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이라 칭한다는 조롱을 들었을 것이고, “이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의 예수”라고 그의 머리 위에 쓰여진 글을 읽었을것 입니다. 그는 또한 십자가의 공포에 직면하면서, 조용하고 제왕적인 예수님의 위엄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서 그는 예수님이 왕이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형집행인들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테고, 그가 응분의 처벌을 받음을 고백한 후, 그가 필요로 함을 알았던 용서를 들었습니다.</p>
<p>To his cry to be remembered Jesus replied,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v. 43). Jesus did not rebuke or criticize him for repenting only at the last moment. No doubt was cast on the genuineness of his repentance. Jesus simply gave the penitent believer the assurance he longed for. He promised him not only entry into paradise, involving the joy of Christ’s presence, but an immediate entry that very day. I imagine that, during the long hours of pain that followed, the forgiven thief focussed his heart and mind on the sure and saving promise of Jesus.</p>	<p>그가 기억되기를 외침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43 절)하고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에 대해 꾸짖지도 비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회개함의 진위에 대한 의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회개한 믿음의 사람에게 그가 간절히 원하던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리스도 임재의 기쁨을 수반한 낙원으로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그 날 즉시 들어감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상상하건데 뒷따른 그 긴 고통의 시간 동안, 그 용서받은 범죄자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확신과 구원의 약속에 맞추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p>

<p>As Jesus looked down from the cross, he saw a little group of faithful women and the apostle John (“the disciple whom he loved”). And then he saw his mother. She was, of course, very precious to him from a human point of view. True, she had not always understood him, and once or twice he had had to speak to her firmly when she stood in the way of his doing his Father’s will. But she was his mother – she had given birth to him, laid him in a manger, and cared for him during his childhood. She had set him a radiant example of godliness. Now here she is at the foot of the cross watching her beloved son executed. It is hard to imagine the depth of her grief as she watched him suffer. Old man Simeon’s prophecy was being fulfilled that a sword would pierce her own soul (Luke 2: 35). Even in his bitter anguish Jesus thinks not of his pain but hers. “Dear woman”, he says, “here is your son” (John 19: 26). John would take Jesus’ place in being Mary’s protector and provider in the years ahead, now that Jesus’ earthly life was finishing. To John he says, “Here is your mother” (v. 27). No doubt John remembered this as a sacred charge from his Lord and Master. It is even possible that John took Mary away immediately so that she did not witness the death of her son, as she is not mentioned in either Matthew or Mark’s Gospel as being in the group of women who were there when Jesus died (Matthew 27: 56; Mark 15: 40).</p>	<p>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를 내려다 보실때, 그는 의로운 여인들의 작은 무리와 그가 사랑했던 제자인 사도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에게 너무나 귀중한 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를 늘 이해하지는 못하였고, 그녀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방해가 되었을 때, 그는 한두 번 그녀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낳아주고, 구유에 눕히고, 유년기를 돌보아 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거룩함의 빛나는 본보기로 세웠습니다. 지금 그녀는 여기 십자가의 발아래서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이 사형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그녀의 비통함의 깊이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로한 시므온의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눅 2:35)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혹독한 괴로움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그녀의 고통을 염려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요 19:26) 하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이 끝나가고 있었고, 요한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향후 몇 년간 마리아의 보호자이며 부양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27 절)하고 이르십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를 그의 주인으로부터의 성스러운 책임으로 명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이 마리아를 즉시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그녀가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고, 때문에 그녀는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있었던 여자의 무리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 27:56, 막 15:40)</p>
<p>Looking back over the first three words from the cross, we are amazed at the unselfishness of Jesus. He had no thought for himself. In spite of the pain and shame he was experiencing, he prayed for the forgiveness of his enemies, he promised paradise to a penitent criminal, and he provided for his bereaved mother. This is love and the apostle Paul exhorts us, “Live a life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Ephesians 5: 2).</p>	<p>십자가상의 처음 세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비이기적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겪고 있던 고통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적들에 대한 용서를 위해 기도했고, 회개한 범죄자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으며, 그의 자식을 잃은 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엡 5:2)라고 열심히 권고합니다.</p>
<p>If the first three words from the cross portray Jesus as our example, the fourth and fifth portray him as our sin bearer. The crucifixion took place about 9.00am (“the third hour”), and the first three words from the cross seem to have been spoken near the beginning of this time. Then there was silence. At about noon (“the sixth hour”), an inexplicable darkness came over the land. It cannot have been a natural eclipse of the sun, because the Feast of Passover took place at full moon. No, it was a supernatural occurrence perhaps intended by God to symbolize the horror of great darkness into which the soul of Jesus now plunged. It lasted 3 hours, during which the suffering Saviour did not speak. He bore our sins in</p>	<p>십자가상의 처음 세 말씀이 예수님을 우리의 본보기로 묘사한다면, 넷째와 다섯째는 그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대략 오전 9 시경(제삼시)이었고, 십자가의 처음 세 말씀은 이 시간의 초반경에 언급되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약 정오쯤(제육시), 영묘한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유월절 축제가 보름달에 치뤄졌기 때문에, 이는 자연적인 일식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혼이 이제 거꾸러짐을 이 엄청난 어둠의 공포로 상징화 하기 위한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초자연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고통받던 구세주께서 말씀하지 않던 세시간 가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침묵가운데 우리의 죄를 감내하셨습니다.</p>

<p>silence. Then, suddenly, at about 3.00pm (“the ninth hour”), Jesus broke the silence and spoke the remaining four words from the cross in rapid succession. The first wa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The terrible cry is recorded by Matthew and Mark alone, and in the original Aramaic – “Eloi, Eloi, lama sabachthani?” Everyone agrees that Jesus was quoting from Psalm 22 verse 1. But why did he quote it and declare himself forsaken? Logically there can be only 2 explanations. Either Jesus was mistaken and not forsaken or he was telling the truth and was forsaken. I believe we must reject the first explanation. To me it is inconceivable that Jesus, in the moment of his greatest surrender, could have been mistaken and that his sense of god-forsakenness was imaginary. The alternative explanation is simple and straightforward. Jesus was not mistaken. The situation on the cross was of God forsaken by God – and the separation between Father and Son was due to <u>our</u> sins and their just punishment. Jesus expressed this terrible experience of god-forsakenness by quoting the only Scripture that foretold it and that he had perfectly fulfilled.</p>	<p>그런 후, 약 오후 세시경(제구시)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나머지 네 말씀을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만 이 엄청난 외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입니다. 모든 이가 예수님께서 시편 22 편 1 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에 의견이 일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는 이를 인용하여 스스로가 버려졌다고 선포했을까요? 논리상 두가지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는 예수님께서 오해하셨고 그는 버림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으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번째 설명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이 위대한 내려놓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잘못 아셨다는 것과 하나님으로 부터 버려짐에 대한 그의 분별력이 가상적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대안적 설명은 간결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잘못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상황은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이었으며, 아버지와 아들간의 분리됨은 우리의 죄와 그것의 정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부터 버려짐의 이 끔찍한 경험을 미리 예언된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표현하셨고, 완벽히 이루어 내셨습니다.</p>
<p>Just before being nailed to the cross, Jesus was offered wine to drink mixed with gall, but after tasting it, he refused to drink it (Matthew 27: 33-34). Perhaps he did this because he was determined to be in full possession of his senses while suffering for us on the cross. Hours later, however, on emerging from the god-forsaken darkness, and knowing that the end was near, Jesus said, “I am thirsty” (John 19: 28). In response the soldiers soaked a sponge in vinegar wine (the Roman soldiers’ common drink) and lifted it on a stalk of the hyssop plant to Jesus’ lips.</p>	<p>십자가에 못박히시기 바로 전,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 27:33-34). 아마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는 동안 온전한 정신으로 계시고자 결심했기에 이렇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어둠에서 나오며, 그 마지막 가까이에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요 19:28)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응하여 병사들이 신 포도주(로마 병사들의 일반적인 음료였던)를 해면에 적서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술에 적시었습니다.</p>
<p>This is the only word from the cross that expressed Jesus’ physical pain. He spoke, John adds, so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Indeed, it had been prophesied twice in the Psalms. In Psalm 22: 15 it is written, “My strength is dried up like a potsherd, and my tongue sticks to the roof of my mouth”, while in Psalm 69: 21 we read, “They put gall in my food and gave me vinegar for my thirst”.</p>	<p>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표현한 유일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하셨고, 요한이 적었고, 그리하여 성경이 완성되어졌을 것 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시편에 두 번 예언되어 졌습니다. 시편 22:15 에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시편 69:21 에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p>
<p>However, we shouldn’t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that this fifth cry from the cross only refers to Jesus’ literal physical thirst. His thirst, like the darkness, was also surely figurative. If the darkness of the sky symbolized the darkness in which our sins enveloped Jesus, and if the death of his body was to symbolize his spiritual death, then his thirst symbolizes the torment of his separation from God. Darkness, death and thirst. Surely these are what the Bible calls hell – outer darkness, the second death and the lake of fire? They all express the horror of</p>	<p>그러나, 우리는 이 다섯번째 말씀이 오로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갈증을 의미한다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과 같은 그의 갈증은 또한 확실히 비유적입니다. 하늘의 어둠이 예수님을 뒤덮은 우리 죄들의 어둠을 상징한다면, 그의 육신의 죽음이 그의 영적인 죽음을 상징한다면, 그렇다면 그의 갈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어둠과 사망 그리고 갈증. 물론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지옥이라 여기는 것들입니다 - 바깥 어두운 곳, 둘째 사망과 불못?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됨의 공포를 표현합니다. 이것이</p>

<p>exclusion from God. This is what our Saviour suffered for us on the cross. Thirst is an especially appropriate symbol, because Jesus had earlier said,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John 7: 37). But the One who satisfies our thirst himself now experiences on the cross a ghastly thirst. He longs, like the rich man in the parable, that Lazarus will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his tongue (Luke 16: 24). And so Jesus thirsted on the cross that we might never thirst again – that we might enjoy the blessed life of heaven.</p>	<p>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하고 말씀하셨기에 갈증은 특히나 적절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던 그 분 스스로 이제 무시무시한 갈증을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계십니다. 부자의 비유에서 처럼, 그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눅 16:24).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다시는 갈증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늘나라의 축복받은 삶을 누릴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셨습니다.</p>
<p>In the first three words from the cross Jesus is our example, in the fourth and fifth he is our sin bearer and in the last two cries he appears as the conqueror, for they express the victory that he has won for us. We could perhaps assert that the words of the sixth cry – “It is finished” – are the most momentous ever spoken. Already in his high-priestly prayer, Jesus had claimed that he had completed the work he had come into the world to do (John 17: 4). Now he makes a public declaration of it. His cry is not the despairing groan of someone who is dying in resignation and defeat, relieved that the ordeal is finally over. NO! It is a shout, according to both Matthew (27: 50) and Mark (15: 37), uttered “in a loud voice”, proclaiming a resounding victory.</p>	<p>십자가상의 처음 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본보기이시고, 넷째와 다섯째에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 얻은 승리를 표현하시, 마지막 두 말씀에서 그는 정복자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섯째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사제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에서 하라고 주신 일을 그가 다 이루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요 17:4). 이제 그는 이것의 공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의 외침은 시련이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안도감과, 체념과 패배로 죽어가는 자의 자포자기한 신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27:50)과 마가복음(15:37)의 말씀으로 미루어 이것은 “큰 목소리로” 말하는,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외침입니다.</p>
<p>The Greek verb is in the perfect tense, making it clear that the achievement will have lasting results. It might be translated as, “It has been and remains forever accomplished”. For Christ has made what the letter to the Hebrews calls “one single sacrifice for sins” and what Cranmer in the Book of Common Prayer called “a full, perfect and sufficient sacrifice... and satisfaction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In consequence, because Christ has finished the work of sin bearing, there is nothing – absolutely nothing – left for us to do, or even to contribute.</p>	<p>완료시제의 그리스어 동사는 이 성취가 지속적인 결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은 성취되었고 영원히 성취되어 남을것 입니다”로 번역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기록된 “죄를 위하여 한 제사를 드리고”, 와 크랜머가 공동기도서에서 “모든, 완전한 그리고 충분한 희생...그리고 전 세계의 죄를 위한 충족”이라고 묘사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감당하시는 사역을 끝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해야 할 또는 기여해야 할 그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p>
<p>And to demonstrate that Christ’s work of salvation was complete, the veil of the Temple was torn down “from top to bottom” (Matthew 27: 51) in order to show that the hand of God had done it. The curtain had hung for centuries between the outer and the inner sanctuaries as an emblem of the inaccessibility of God to sinners – for no-one was allowed to go beyond the veil into the presence of God except the high priest on the Day of Atonement. But now the veil was torn in half and discarded, for it was needed no longer. The worshippers in the temple courts, who gathered that afternoon for the evening sacrifice, were dramatically informed of another and better sacrifice by which they could draw near to God. As Peter was to</p>	<p>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심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이를 이루어내셨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마 27:51). 죄인들에게 있어 하나님께 접근 불가함의 상징이었고, 속죄일에 대체사장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휘장 너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감에 허락되지 않았던 그 휘장은 성소 외부와 내부의 사이에 수세기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고 버려져, 이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저녁 제사를 위해 그 오후에 모여있던 성전의 예배자들은 휘장을 걷어내고 하나님 가까이서 드리는 다른 더 좋은 제사에 대해 극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기록한 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p>

<p>later write, “For Christ died for sins once for all, the righteous for the unrighteous, to bring you to God (1 Peter 3: 18).</p>	<p>불의 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벧전 3:18).</p>
<p>None of the Gospel writers says that Jesus “died”. They seem deliberately to avoid the word. They do not want to give the impression that in the end death claimed him and that he had to yield to its authority. Death did not claim him as its victim – rather he seized it as its victor. Between them the Gospel writers use 4 different expressions, each of which places the initiative in the process of dying in Jesus’ own hands. Mark says he “breathed his last” (Mark 15: 37) and Matthew that he “gave up his spirit” (Matthew 27: 50), while Luke records his words,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Luke 23: 46). But John’s expression is the most striking, namely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John 19: 30). Jesus handed over his spirit to the Father and his body to death. Notice that before he did that, he “bowed his head”. It is not that he first died, and then his head fell forward onto his chest. No it was the other way around. The bowing of the head was his final act of surrender to the will of his Father. So by word and deed (bowing the head and declaring that he was handing over his spirit), Jesus indicated that his death was his own voluntary act.</p>	<p>복음서의 어느 저자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피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죽음이 그를 앗아가고 그의 권세를 넘겨주어야 했다는 인상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것의 희생양으로 그를 앗아가지 않았습니다 – 그보다 그것의 승리자로서 이를 붙잡았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각의 죽어가는 과정의 주도권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네가지의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마가는 “숨지시니라”(막 15:37), 마태는 “영혼이 떠나시니라”(마 27:50), 누가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요한의 기록은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 19:30)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고, 그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이를 행하기전, 그는 “머리를 숙였다”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먼저 죽고 그의 고개가 숙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의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행동에 의해(머리를 숙임과 그의 영혼을 맡기신다는 선포),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이 그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p>
<p>Jesus could have escaped death right up to the very last moment. As he said in the Garden of Gethsemane, he could have summoned more than 12 legions of angels to rescue him. He could have come down from the cross, as his mockers challenged him to do. But he did not. Of his own free will and deliberate choice he gave himself up to death. It was he who determined the time, the place and the manner of his departure. The last two words from the cross – “It is finished” and “I commit my spirit” – proclaim Jesus as the conqueror of sin and death. If we come humbly to the cross, confessing that we deserve nothing but judgment for our sins and pleading nothing but mercy, Christ will deliver us from both the guilt of sin and the fear of death.</p>	<p>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앞둔 아주 마지막 순간에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조롱하던 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시험하였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의 자유 의지와 의도된 선택으로 그는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려 놓으셨습니다. 떠날때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방식을 결정하는 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상의 마지막 두 말씀 – “다 이루었다”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정복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으며, 자비외에는 아무것도 애원할 것이 없음을 고백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죄책감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p>
<p>As we ponder again the Cross of Calvary this Good Friday, and see and hear Jesus suffering and dying there for us – what a challenging and selfless example, what a costly and all-sufficient sacrifice and what a magnificent and complete victory.</p>	<p>이 부활절에 우리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다시 꼼꼼히 생각해 보며,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죽어 가시던 예수님을 보고 들으십시오. 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이타적인 본보기입니까. 이 얼마나 대가가 크며 온전히 충분한 희생입니까, 이 얼마나 훌륭하고 완전한 승리입니까!</p>